

월요광장

손이 할 수 있는 가장 어여쁜 역할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그녀가 처음 서류 한 장을 들고 찾아온 날을 선명히 기억한다. 점심시간이었고 예정에 없던 방문이라 오후에 보자고 했는데 그녀는 우두커니 밖에서 기다렸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미루고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동사무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다고, 노인장애인과 세류를 넣기 전에 가능성을 타진하러 온 참이었다. 뇌병변 2급 판정을 받은 그녀를 선택 받기는 곳이 없었던 것이다. 응얼응얼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데 한참 걸렸다. 이력서를 내미는 손은 심하게 떨렸고, 한 발 내딛을 때마다 기우뚱거렸고 걸음은 위태로워 보였다. 흔하디 흔한 도서관에서 일하면 우아하게 책 읽고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쉽지가 않다. 이력서를 제출하러 가야 하고, 책을 한 보따리씩 들고 오르내리러야 하며, 이용자들이 어질러 놓은 자리를 말

끔히 원상 복구 하느라 쓸고 닦는 게 하루 종일이다. 막강한 체력과 신속하고 친절 한 서비스정신, 책에 대한 전문성,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강도 높게 요구되는 일터인 셈이다. 모두가 보호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말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책을 옮기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걱정이라고 말이다. 인종, 학력, 성별, 종교, 그 어떤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생각하면 기회를 만들고 더불어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나고 마주치고 함께 해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걱정이 하나의 편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 책 정리하는 일손 하나는 더없이 소중한 것 아니냐고 말이다. 일하고 싶은 곳을 찾아와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그녀의 용기와 간절함이 한뼉뼉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덧 3년을 함께 일하고 있다. 해마다 서류 전형을 다시 밟고 기회를 얻으면 일자리를 배정받는 일이 반복되지만 걱정과 응원을 함께하며 일터의 가족이 되었다. 지칠만 부딪침도 많았고,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불만을 줄여 나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얼마 전의 일이다. 그녀의 행동이 수상했다. 눈이 통통 부었고 일찍 들어갔다고 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우울한 것이 예전의 '정서적 청소녀'로 돌아와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출근길 시내버스에

서 기사가 빨리 안 탄다고 보호자 없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혼자 다닐 수 있다고 대답하자 버스에서 넘어지면 자기가 책임 못 지니 다음부터는 못 태워 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창피하고 화도 나고 가슴이 쿵쿵거렸다고 했다. 그래서 빈자리에 앉았는데 장에 인식이 없어야지 왜 일반석에 앉느냐고 또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쯤 되니 버스에 탔던 승객들도 불편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정신없이 버스에서 내리는 와중에도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아침마다 이런 실랑이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생각할수록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울었다. 듣고 보니 물 일이 아니라 싸움 일이었다. 혼자 집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겠다는 그녀를 얹어 놓고 승차 시간과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 버스 회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시청 시내버스 관련 부서에도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오든지 우선 그녀가 느낀 부담감과 수치심을 우리가 함께 말해 주는 것이 우선이었다. 감정에 복받쳐 응얼응얼하는 목소리로는 저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해 우리는 또박또박 상황

을 전달하면서 그녀의 심정이 되어 울려댔다.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그때, 우리가 바로 그녀라는 걸 알았다. 몇 시간 뒤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재교육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다음날 버스 기사도 미안하며 직접 사과를 했다고 그녀가 전해 주었다. 시간 맞춰 수많은 정류장을 통과해야 하는 버스 기사에게도 그녀의 승차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보호자 없이 버스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왜 안 했겠는가. 우리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 같은 말이라도 조심하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승차 거부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 이런 일을 지켜보며 내 안에 자리 잡은 낯선 시선을 돌아본다. 사과의 진정할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도 숙제처럼 안겨온다. 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여쁜 역할은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 촉각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포로부터, 어떤 설움으로부터, 어떤 아픔으로부터 진정되곤 한다.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우리에게도 비로소 우정이 싹트나 보다. 우정이란 나와 내가 제3의 낯선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이니까 말이다.

법조칼럼

블랙리스트, 그 오만과 편견의 종착지는?



이 대 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동

요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간의 화제다. 예전에도 블랙리스트는 그 존재가 드러난 적이 있었다. 봉제공장 미싱사 블랙리스트, 편의점 알바생 블랙리스트, 중국집 배달원 블랙리스트, 학원강사 블랙리스트, 블랙컨슈머 리스트 등등. 여기에 열거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도 있을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시대와 사회, 개인과 집단 등의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형태로 각계 각층에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신문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앞에 열거한 블랙리스트와 차원이 다르다. 지난해 10월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밝혀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반정부적 작품이나 공연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끊기 위해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으로 국가 공권력이 만들어 공적 영역에서 시행한 것이다. 반면, 앞에 열거한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민간 영역에서 공유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제도화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만드는데 일각이 있는 공무원들이 제도화하지 못한 것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형법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를 명시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누군가의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그의 타당한 비판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오만한 행위이다. 누군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하는 것은 편견을 가진 행위이다. 오만과 편견을 우격다짐과 막무가내로 관철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실행하게 한 책임자들이 밝혀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범하자마자 그들을 고소·고발했고 현재 그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검열 사찰 배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행위는 결국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4월19일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침해에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하며 인정한 탄핵 사유에는 블랙리스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과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이는 것은 유사한 위헌·위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법원에도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것이 법관인사 등과 관련해 운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판사들을 뒷조사한 과일’이 그것이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 등 대책 건건이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분석해 법관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진상조사위 발표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법원에서까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법원인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이 슬기를 모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안 용 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흔히 3월 3일은 삼짱날 데이, 11월 11일은 배배로 데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지난 4월22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바로 '자전거의 날'이다. 22일의 2가 자전거 두 바퀴를 상징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에 녹색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이 날을 '자전거 날'로 지정했다. 매년 4월 22일 자전거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및 지구온난화 완화 위한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 환경, 건강, 측면에서는 자전거는 매우 훌륭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한다. 스페인의 유명한 철학자 '가제트'는 자전거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힘을

얻어 보다 빨리 가기 위해 고안된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문화 저변 확대와 건강 및 레저에 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이 맞물리면서 자전거 타기가 이제는 전국적인 붐(boom)을 이루고 있다. 봄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에 가족단위 또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건강한 여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서구 백전동)에서 50대의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수리기술자를 안내센터에 배치하여 펌크수리, 체인오일 주입 등 간단한 정비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대여 자전거의 공기압 확인, 브레이크와 기어 케이블 상태확인 등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2인용 자전거 7대를 새로 구비하여 영산강을 찾는 연인 또는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외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자전거 타기는 '살랑이는 봄바람을 만끽하며', '바깥 경치를 구경하고', '내 몸의 건강도 챙기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더불어 자전거도로 구간이 70% 이상, 편도 15km 내외일 경우,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하고 싶다. 출퇴근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활용해 다이어트는 물론 생활의 활력을 찾아 업무능력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시설과 출근 시 흘린 땀을 씻을 수 있는 샤워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사내동호회 지원을 통해 자전거 타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전거의 날'을 계기로 시민들도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과 더불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전거를 내 삶의 일부로 삼아 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자전거 타기는 온전히 나 자신의 힘을 동력으로 한다는 매력과 함께 지속적인 뇌 자극을 통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잠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레저나 보조적인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차'라는 인식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의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 장갑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및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정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자전거에 흥미가 있으나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자전거라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우리 시민의 실천이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적지않은 발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광주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전거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케케묵은 논쟁만 있고 정책이 안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중반점으로 접어들면서 지방선거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네거티브 전략은 늘 있겠지만 이번엔 도가 지나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 있다. 지방선거 패배가 심각한 이유는 정작 중요한 후보들의 정책 비교가 힘들다는 데 있다. 선거를 보며 앞둔 지금은 특히 안보 이슈를 두고 지방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며칠 전 2차 TV토론회에서 불거진 북한에 대한 주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송민준 전 외교교통부장관의 회고록이 등장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시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릴 때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했고 그 주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물론 문 캠프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맞섰다. '호남 흉터론'을 놓고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노무

현 정부 시절 호남 인재 등용을 놓고 "흉터했다" "안 했다"며 치고받고 있다. 민주당이 '호남 흉터는 없었다'며 노 정부 당시 정무직 인물 리스트를 공개하자 국민의당은 다른 자료를 근거로 호남 출신 정무직 지수가 김대중 정부의 절반에 그쳤다고 흉대가 맞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안보 이슈나 호남 흉터론이 모두 과거 케케묵은 논쟁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둘 다 매우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한반도 위기 해법을 놓고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지 집권하면 호남 흉대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지 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선거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흑색선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끄는 강령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좋은 정책이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역덕독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흥행 돌풍 예고한 완도 해조류박람회

'바닷말의 약속, 미래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5월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의 누적 관람객이 어제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4일 개막한 이후 불과 7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7일 만에 20만 명을 기록하다니 1개박 10일째인 어제 3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조직위는 이 같은 추세라면 목표 관람객 60만 명을 넘어 80만 명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행사답게 외국인도 1만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조직위는 전시관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관람객을 끌어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전시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제관인 바다신비관은 국내 최초로 360도 워터스크린을 이용하여 해조류의 역사와 다양하고 신비한 해조류 모습을 재현했다. 건강인류관은 다시마로 만든 해조류집을 전

시하여 웰스케이 기초로서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미래자원관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바이오연료, 화장품, 의약품 소개를 통해 해조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환경관은 VR(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 실제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조숲을 생생하게 표현해 냈다. 또한 전통 방식의 김뜨기 체험, 해조류 체험장(미역, 다시마, 청각, 툯 등) 등에서는 관람객이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 살아 있는 청소년 교육 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조류 국내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완도의 특산물들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가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남은 기간 동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 최대의 정경해역인 전남의 해조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해조류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영국에는 두 개의 장미전쟁이 있다. 15세기 장미전쟁은 30년간 진행됐다. 붉은 장미를 갑옷의 겹옷과 깃발에 마크로 사용한 '랜커스터 가문'과 흰장미의 '요크 가문'이 왕위 계승권을 놓고 벌인 내전이다. 이 전쟁은 수차례 잊혀질 뻔했지만 끝에 랜커스터 집안의 헨리 7세가 요크 가문을 물리치고 튜더 왕조를 여는 것으로 평정됐다. 이 전쟁 후 양가(兩家)는 결혼을 통해 화합했고,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합쳐 왕가의 표기(標記)로 삼았다. 그 후 장미는 영국의 국가가 됐다. 또 하나의 장미전쟁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 있다. 랜커스터 가문의 랜커셔 주에 위치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요크 가문의 요크셔 주에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 간 경기이다. 경기 때마다 맨유는 붉은 장미꽃을, 리즈는 하얀 유니폼을 입어 장미전쟁을 상기시킨다. 장미전쟁의 양속이었던 두 지역을 대표하는 맨유와 리즈의 경기는 '장미 데비(derby)'로 불린다. 계절의 여왕인 5월, 장미가 피는 시기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고 해서 '장미 대선'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장미에 따지 걸기

강하니 서민 정서에 가까운 꽃 이름을 따 '절로꽃 대선'이라 부르자는 이도 한둘이 아니다. 또 탄핵으로 인한 선거는 국가 차원에서는 불행인 만큼, 낭만적 이미지의 장미보다는 '조기대선'이 맞다는 사람도 있다. 권력 다툼의 대명사인 영국의 '장미전쟁'이 떠오르며 '19대 대선'이라 쓰자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이번 대선을 받기는 좌파 언론이 '장미 대선'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의혹설도 있다. 하지만 1000원이면 손쉽게 살 수 있는 장미꽃을 놓고, 귀족 꽃이니 권력 전쟁이니 시비를 거는 것은 따지에 지나지 않는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